

신안지역 해상풍력 송변시설 구축 협약

신재생에너지 주민 공유 프로젝트 한전 참여

에너지 민주주의 · 주민 소득 기여 예상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신안 해상풍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안 해상풍력 업무협약(MOU)은 전라남도·신안군·한국전력공사·전남개발공사 4자간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3GW 규모 공동접속 설비를 구축하는 협약으로 정부가 풍력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이번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박지원, 서삼석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종갑 한전사장, 김철신 전남개발공사사장이 참석하였고, 그 동안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주민 공유 정책의 가장 걸림돌인 송전망 확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7기 박우량 신안군수가 취임 후, 2018. 8월 첫 기자회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설명하고 송전망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이번 성과를 거두었다.

신안군에서는 지역자원인 햇빛, 바람, 조류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례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에너지 개발에서 주민소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 이익이 기업과 주민이 공유하는 '에너지민주주의' '주민 새로운 소득' '새로운 복지의 상징'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태양광 1.8GW, 해상풍력 8.2GW 등 10GW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큰 과제인 송전망 확보를 위해 정부, 국회에 송전망을 사회기반시설로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전의 신안지역 입지계통 T/F팀이 신설되어 신안지역에 10GW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연계망이 구체화되었고,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대표 일자리 모델사업에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선정되어 운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를 팀장으로 전남형 상생일자리 T/F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에서 신안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사업의 지지 약속과 12.12(목)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는 신안군 자라도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 재생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선도 지자체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태양광 1.8GW, 해상풍력 8.2GW 총 10GW 규모의 발전사업에 민간투자 포함 총 52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11만9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도서관, '우리동네 옛이야기' 출판

강진군도서관이 지난 19일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동화책 '우리 동네 옛이야기, 남당포를 지킨 김흥업 장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동화책은 강진읍과 관련된 전설과 역사,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동화책에 실린 이야기 6편의 내용으로는 현 도서관 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코뚜레 연못'을 비롯해 임진왜란 때 강진을 지킨 '김흥업 장군 이야기', 바둑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바둑의 신 '조정룡', 선조 임금도 인정한 효자 중에 효자 '최귀생',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장군마위' 전설,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여인의 이야기인 '은애전'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지역의 향토사학자인 양광식 강진문학과전연구소장의 감수를 받아 김해등 동화작가가 직접 썼다.

양광식 소장은 "강진지역에는



흥미로운 전설과 역사가 무수히 존재한다"며 "우리들은 이 이야기들을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등 동화작가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며 책을 읽으면 좋을 듯하다. 강진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들이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승옥 군수는 "이 여섯 편의 강진이야기는 강진에서 나고 자란 어린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라며 "이 책이 여러분의 오늘에 지혜를 심어주고 미래를 환하게 밝혀 줄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평석두어촌체험마을 성공모델로 성장



함평군은 2019년도 석두어촌체험마을이 한층 더 발전한 어촌의 성공모델로서 최고의 성과를 발휘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경관·서비스 1등급, 체험 1등급, 숙박 1등급, 음식 2등급으로 신규등급을 부여 받았을 뿐 아니라 2019년 어(漁)올림 콘테스트 최우수상,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무장 최우수상, 도시어촌교류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어촌의 성공모델로서 완전한 입지를 굳혔다.

석두어촌체험마을은 고품화 등

으로 침체된 어촌마을에 2002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운영 등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최단시간에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장점과 갯벌바다, 맨손물고기잡기, 소라다육이 만들기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꾸준한 관광객과 마을소득이 증가하였다.

또한 체험마을 주민들이 직접 바다해설사, 심폐소생술,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등을 이수 하여 관광객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체험환경을 제공하였다.

석두어촌체험마을의 손흥주 위원장은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힘입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어촌체험마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흥 님프만 대표 박윤희, 교복비 기탁

장평면 장평중

장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7일 협의체 위원장, 장평면장, 장평중 교장,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평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교복비 지원 기탁식을 가졌다. 이는 장흥 님프만 대표 박윤희가 올해 정평면협의체에 지정 기탁한 1,000만원 중 일부이다. 지난 7월 독거노인을 위한 노후방충망 수리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이어 마지막 지정 기탁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대부분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였다면,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체 민간 위원장 김용문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 이번 사업이 청소년 복지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평면장 김주호는 "이웃 사랑과 지역 나눔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장흥 님프만 대표 박윤희씨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탁자 장흥님프만 대표 박윤희는 "지정기탁금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쓰인 것 같아 마음이 좋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무안군, 5G 기반 VR/AR E-스포츠 행사

무안군은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남악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5G 기반 'VR/AR E-스포츠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G 기술을 적용한 VR/AR 스포츠 체험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이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ICT기술과 접목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가상 스포츠 존을 마련하였다.

4개의 이동식 큐브로 구성되어 K-POP 댄스, 축구, 농구, 양궁,

스키, 로잉 등의 스포츠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감지하여 운동의 재미를 극대화 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모바일 게임 '탈리온'과 ㈜엔트로스의 AR/VR 체험형 콘텐츠인 '바운스 플레이'가 연합해 운영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